

34. 짓밟힌 진리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2012. 8. 19.

금빛 새벽 은혜와 진리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다니엘 8장의 숫염소와 작은 뿔의 실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작은 뿔이 저지른 사건과 그것이 회복되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한 서너 번 나누어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단8:13,14]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8장을 말씀하실 것이지요? (예) 단8:11에 보면 이 작은 뿔이 성소를 헐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면서 그것을 자신이 차지하고 진리를 땅에 던졌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답: 예, 이미 지난 시간에 잠깐 말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성소를 허는 것은 이중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국로마가 기원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린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교권로마가 예수님이 봉사하시는 하늘성소와 성소봉사 자체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속죄를 선언하고 있지요.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말한 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버리고 그것을 작은 뿔이 차지한다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성경의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번역한 말은 원어로는 타미드인데, 이것은 항상 하는 봉사를 뜻합니다. 원어에 제사라는 말은 없는데요, 타미드에는 제사도 포함되지요. 성소봉사에서 타미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항상 차려놓는 무교병, 항상 켜두는 등대, 분향단에서 항상 분향하는 봉사입니다. 이 넷을 통틀어 타미드라고 하지요. 그런데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면 제물을 드리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해하게 되지요.

2. 예수께서 하시는 봉사를 어떻게 지상에 있는 작은 뿔의 세력이 차지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답: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실제적 사건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사업을 실제적으로 방해하는 종교적 행사로서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타미드는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봉사에 대한 표상인데요, 날마다 드리는 제물은 예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나타내고 떡 상에 차려놓은 떡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표상하고, 등대의 등불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분향단의 분향은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늘에서 친히 하시는 그 일을 성직자가 차지한다면 타미드를 작은 뿔의 세력이 차지한다는 말이고 하늘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속죄봉사의 실제적인 효과가 교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성소를 헐고 타미를 차지한다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다 예수를 믿는 신앙과 교리에 실제적인 사건이 됩니다.

3.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말씀이지요. 확증이 있는지요?

답: 그럼요. 이미 7장을 공부할 때 살펴본 대로 작은 뿔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 교회인 것처럼 조직된 교권로마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권국의 교직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들이 실제로 행한다고 주장하고 신도들에게 회개와 속죄를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 교직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고 또 그렇게 행할 때에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타미드를 자신들이 차지하는 것이고 실제로 하늘 성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성소를 헐고 타미를 차지하는 것이 되지요. 그분들의 글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글을 한 번 읽어보지요.

문920: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와 같은 제사인가?

답 :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와 같은 제사이다.

문921: 어떻게 미사가 십자가의 희생 제사와 같은가?

답 : 그 까닭은 제물과 제사장이 같은 분, 즉 우리 복되신 주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며, 미사에서 희생 제물이 바쳐지는 목적과,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바쳐진 목적이 같기 때문이다(Thomas L. Kinkead, A Catechism of Christian Doctrin, 196, 197).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중재를 통하지 않고 친히 죄인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회개하는 죄인을 친히 용서하십니다.

[히 10:11~14]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롬 8:33, 34 참고)

미사에 대한 교권로마의 설명은 이상에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의 속죄제를 인간의 고안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교권로마는 교직자의 직임을 “제사장”(priest)이라고 불러서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제사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기가 성경이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속죄를 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제사장이라고 했지요.

[벧전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세요. 제사장들이라고 했지만 이들이 죄 사하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롬15:16]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바울이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것은 이방인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직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는 직무로서의 제사장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교권로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을 보세요. 목사님이 읽으시지요.

“사제(priest)는 주 그리스도와 하나요, 동일한데, 그 이유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몸과 피를 바칠 때, 그들 자신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개체로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성찬에서의 성별의 말씀에서도 나타나는데, 사제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신부는 떡과 포도주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 본질로 바꾸는 것이다”(Catechism of the Council of Trent). (트렌트 종교회의 교리문답)

이 말은 사제가 집전하는 성만찬 예식에서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사에 의하여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것과 같은 속죄의 효과가 있다는 말이지요. 다음 주장을 읽어봅시다.

“미사의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빵과 포도주의 봉헌이다. ...미사의 희생 제물은 동일한 제물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써, 십자가의 희생 제물과 동일시된다.”(Gibbons, Cardinal, Faith of Our Fathers-우리 교부들의 신앙, 356)

같은 책 361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사의 희생 제물은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으로 드러진다. 비록 그리스도가 매일 수만의 제단 위에서 바쳐지기는 하지만, 희생 제물은 동일한 대 제사장과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갈바리의 제물과 같은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봉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수만의 제단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질 필요가 없지요.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죄를 직접 주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주께서 하늘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하시는 속죄의 봉사입니다.

교권로마의 이러한 제도는 매일 수만의 제단 위에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나치게 생각하나요. 다음 성경말씀들은 저의 이해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요.

[히 9:25, 26]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 10:10]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히 6:6]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 10:29]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는다고 하고 위에 지적한 교권로마의 세력을 표상하는 작은 뿔의 세력이 어떻게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닙니까. 속죄하는 일이 어떻게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는지, 그분들의 증언을 또 들어 봅시다.

문2: 고해성사(the Sacrament of Penance)란 무엇인가?

답 : 고해성사란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들을 사해 주는 성례이다.

문3: 사제는 참으로 죄를 사하는가, 아니면 죄들이 사하여졌다고 선언하는 것뿐인가?

답 : 사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세로써 죄들을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사한다.

문5: 고해성사에서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는가?

답 : 가톨릭교회의 감독(주교)들과 사제들에게 위임되었다(Joseph Hebarbe, A Full Catechism of Catholic Religion, 275, 150).

제사는 주로 죄 사함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제사는 죄를 사하실 분에게 드려져야 하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막 2:7)는 말씀대로 하나님 외에는 제사를 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권로마는 사제와 감독들이 “실제로, 참으로” 죄를 사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타미드를 그들이 차지한 것입니다.

4. 참 놀라운 주장들이네요. 그런데 작은 뿔이 이렇게 행하면서 형통했다고 12절에 말했는데, 역사적으로 살피면 정말 그렇게 오랜 세월을 형통했습니다. 13절에는 언제까지 그런 상태가 계속될 것인지 묻은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입니까?

답: 성경구절을 읽고 답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3,14절을 읽어보지요. 목사님이 읽으세요.

[단8:13,14]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에게 부친바 되고, 타미드와 망하게 하는 죄악과 진리가 회복되는 것이 2300주야 끝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지요. 13,14에는 진리에 대한 말이 없지만 12절에 보면 진리를 땅에 던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진리도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5. 2300주야까지라는 말은 얼마나 오랜 기간을 뜻하는 말입니까?

답: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살핀 다음에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 같네요. 먼저 상징으로 보여준 장면과 천사가 설명해준 내용을 나란히 놓고 한 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징으로 보여준 구절부터 읽어보도록 하지요.

단8:9~14을 읽은 다음, 23~26을 읽도록 합시다.

[단8:9~14]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단8:23~26]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궤휼에 능하며 24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5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궤휼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26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작은 뿔의 실상을 설명하면서, 얼굴이 엄장하고 궤휼이 능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권세가 자기 힘이 아니고,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세력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 세력은 꾀를 베풀어서 궤휼을 이루고 스스로 큰 체하고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작은 뿔에 대하여 설명하고 2300주야에 대하여서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확실하니 간수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설명했지요.

얼굴이 엄장하고 궤휼에 능한 왕이 자기 힘이 아닌 세력을 의지하여 파괴하고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교권국이 중세 동안 행한 일을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정말 그는 스스로 큰체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 대적하는 것이 확실하지요. 자기 힘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 힘의 근원이 누구이겠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고 그래서 이 작은 뿔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나타내고 있지요. 고후11:13,14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력은 역사 끝까지 갈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사람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살후2:에 잘 설명했지요. 목사님이 살후2:4~9절을 읽어보시지요.

[살후2:4~8]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5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6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8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이 말씀은 대적하는 자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인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존재는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8:25에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진다는 말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의 세력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에 존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일을 행할 것인데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에게 힘을 주는 세력을 의지하여 예언에 계시된 행사들을 할 것입니다.

6. 그러면 2300주야라는 말은 이 권세가 깨어지는 기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 기간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는 기간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답: 예, 목사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대한 것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36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연대에 대한 예언들을 살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과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2300주야는 성소가 정결하여지는 것에 대한 것이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연대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한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기원 1844년이라고 해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해석에 고무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크게 외친 일이 있었지요. 특히 북미지역에서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재림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때 주역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여파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되는 계기를 맞았는데, 오늘날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다른 교단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를 재림교회의 창시자로 선전하고 있더군요. 이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밀러는 죽을 때까지 침례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가 재림교회 창시자라는 말은 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이 사실인줄 생각하고 있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것이지요. 2300주야는 예수 재림에 대하여 한 말이 아니고 성소정결에 대하여 한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소정결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2300주야라는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됩니다.

7. 그러면 성소정결에 대하여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성소정결이 무엇입니까?

답: 아마 지금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겠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성소정결을 알려면 구약성경에 기록된 성소구조와 그 봉사에 대하여 바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성소에 관한 말씀만을 연구한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청자들이 이해할 정도로는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지요.)

성소문제를 알려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을 살펴야 하고 성소봉사에 대한 것을 알려면 레위기를 자세히 공부해야 합니다. 또 하늘성소에 대한 것을 알려면 히브리서를 잘 공부해야 하지요. 물론 히브리서의 하늘성소를 알려면 출애굽기 레위기에 기록된 세상에 주신 성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늘성소 문제를 바르게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성소문제를 자세히 공부할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8. 목사님이 말씀하신대로 간략하게나마 말씀하셔야지요.

답: 그렇게 합시다. 우선 성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출25:8,9을 읽어 봅시다.

[출25:8,9]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9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하여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지을지 그 양식을 보여주셨는데, 즉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여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은 구조상으로는 세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가 들어설 마당의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폭이 50규빗입니다. 이 마당에 울타리가 되는 포장을 둘러칩니다. 그리고 그 마당 동쪽에서 50규빗 되는 지점에 성소를 세웁니다. 성소는 동쪽에 출입문을 내고 동서로 30규빗 길이에 남북으로 10규빗 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마당은 성소 앞뜰이 50규빗 정방형이 됩니다. 뒤뜰은 성소에서 뒤 울타리까지 20규빗이 되지요. 성소는 다 이동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천막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서 길이 30규빗, 남북으로 너비가 10규빗입니다. 성소 양쪽 벽으로부터 양쪽 울타리까지 양쪽 다 20규빗이 되지요. 이런 규모로 성소 천막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동쪽 입구에서 20규빗 지점에 두껍고 화려하게 수놓은 휘장을 드리워서 앞부분을 성소, 휘장 뒷부분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는 10규빗 정육면체가 됩니다. 높이도 10규빗으로 했으니까요. 다시 한 번 말하면 성소 천막 자체는 길이가 30규빗 폭이 10규빗 높이가 10규빗이 되는 천막입니다. 그것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동쪽 입구에서 20규빗 되는 곳에 휘장을 쳐서 두 칸으로 나누었습니다. 뒤쪽 지성소는 완전히 정육면체입니다. 이렇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에 두어야 할 기구들이 있는데, 뜰에는 번제단과 물통, 물두멍이라고 하지요. 성소에는 떡 상, 일곱 가지를 가진 순금 등대,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소의 구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기 위하여 짓게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구조물을 통한 도해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집, 그것은 곧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상입니다. 성소와 성소봉사는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의 사업을 나타냅니다.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도 예수님의 구원사업과 관련된 예언이지요. 이 목적을 잃지 않고 연구해야 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이지요. 애청자들께서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9. 목사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의 예언과 성소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들이 잘 설명하게 하시고 애청자들이 잘 깨닫게 복을 주셔서 올바른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